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절 후 제3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통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청과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고향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온 자녀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난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 사회를 어찌해야 합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이 사회의 부정함을 꾸짖어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어간 용산 철거민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큰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 하여주십시오. 하루 속히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전10:13 인도자

♠ 교 독 문 6. 시편10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함께

성경봉독 I. 막1:14-20 인도자

II. 막3:1-6 홍순구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 나라의 소비 ... 이성운 전도사

II. 안식일의 알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찬 송 70(통79). 피난처 있으니 말은이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자
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사십시오. 우리의 안팎에서 그 흐름
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의 순리를 막고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교만과 욕심
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못 생명을 섬기는 이가 되어 살겠
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명절을 가족과 함께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현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권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김금순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호원 김 극 정경례 고숙이 서정순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

사랑과 지혜 면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전체 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있는 셈이다. 그에 반해 성장을 거부하거나 진보를 두려워하는 구성원은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성장과 동시에 전체 공동체의 성장에도 책임이 있다.

인간의 성장은 우리의 행동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통합시킴으로써 완성된다. 행동이 상호 관계나 우리 자신의 취약성 또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은 의존이나 성본능 그 자체 또는 우리의 내밀한 자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행동이 도피 또는 어떤 것을 입증하려는 욕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및 온정을 베풀 능력이 스스로 우려날 수 있을 때 행동은 우리의 참된 자아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사소한 발걸음을 모두 이야기한 상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성장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때때로 보증인과 더불어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찰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나 보증인에게 마음을 열기를 꺼려한다. 우리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소한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쉽고 안전한 일이 된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비밀 뒤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힘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이 보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보증인을 완전히 신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보증인 역시 자신의 입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체 장애자들을 돕기 위해 라르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돕고 자극하며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공동체를 자신의 성장과 수련의 장소로 여긴다. 이는 더욱더 좋은 일이다.

신체장애자들의 생활에 스스로 보탬을 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 및 다른 협력자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할 때 흔히 충격을 받는다. 우리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일보다는 오히려 신체장애자들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일 - 우리는 바로 이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 이 언제나 더 쉽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나 다른 협력자에게는 오직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성장이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 보편적 사랑 안에서 이를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태도로 처신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공동체 생활에 차츰 경험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어찌면 신앙까지 깊어 감에 따라 인간의 나약성과 한계를 의식하게 되고, 이기심과 공포감과 공격성과 자기 주장이 힘으로 인간 생활을 지배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장벽 너머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장벽을 걷어 주며 우리를 치유해 주고 구원해 주실 때뿐이다.

.....

희망은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의 매듭과 장벽을 밝혀 보이려는 정신 분석학적 시도 속에 내재하는 것도,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구조를 더 공동하게 재조직하는 일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참된 성장은 우리가 어두운 나락 속에서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의 성장은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다. 우리가 사랑 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그것은 하느님과 더 완전하게 결합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랑 면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기심이라는 문이 열려야 한다. 그러자면 고통과 끊임없는 노력과 거듭되는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사랑 면에서 성숙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사춘기 때의 열정과 이상 및 순진성을 뛰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에

꽃이다

꽃송이도 있고
꽃잎도 줄기도 가지도 있다

떠도는 세상의 추운 입김들을
꽃으로 바꾼
유리의 투명한 눈빛 향기

해가 뜨면
햇살 속으로
잘 가라 놓아줄
뜨거운 꽃의 마음도 있다

-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원호 전해리 박병구 전월수 오자영 옥귀희 정복순 김정애 오재환
박지인 이봉옥 무명

월정헌금:

박준혜 이기분 김문주 김대근 최종미 황의일 구자훈 이재구 황선희
최철수 곽권희

감사헌금:

김춘려 한상익 정영선 한종묵 송임희 이유일 김미희 박병구 무명7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옥귀희 박두석

녹색꿈 헌금:

윤석철 이성범 이인범 곽상준 최경미 박성래 무명

(누계: 9,401,000원)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شم	شم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새로 되신 임원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임원회는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2. **설날** : 오늘은 명절 연휴 관계로 점심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후 집회도 쉽니다.
3. **수련회** : 중고등부 수련회가 30일, 31일에 용인 심소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선교회** :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새 해 첫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배움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5. **실천** : 모두가 행복한 명절 만들기를 위해 남성분들도 주방 일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